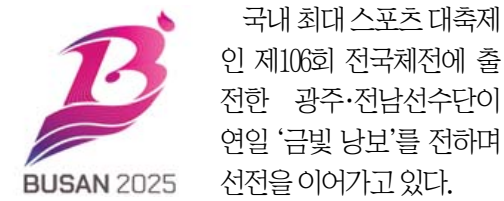


광주체고 쿼드러플스컬 ‘3연패’...근대5종 김영하 ‘2관왕’

산악 신은철 ‘한국新’, 양궁 오예진 ‘2관왕’, 유도 황수련·김민주 ‘金’
유도 김지정 ‘3연패’, 역도 신태양·김수용 ‘2관왕’, 우슈 김민주 ‘4연패’



국내 최대 스포츠 대축제인 제106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광주·전남선수단이 연일 ‘금빛 낭보’를 전하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선수단은 대회 첫날인 지난 17일 신은철(더월)이 스포츠클라이밍 속도에서 5분08초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과 함께 금메달 수확을 시작으로 김혜규(조선대)가 태권도 남자대학부 -58kg급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역도에서는 ‘차세대 장미란’으로 주목 받고 있는 김체량(광주체고)이 여U18 +87kg급 경기에서 대회 첫 3관왕을 신고했다.

사격에서는 김도훈(한체대)이 남자대학부 공기권총에서 대회신기록으로 2연패를 달성했고, 근대 5종 간판스타 전용태(광주시청)도 근대4종 개인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2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궁에서는 오예진(광주여대)이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한체대)과의 자존심이 걸린 거리별 4종목 맞대결에서 금메달 2개씩을 나눠가지는 명승부를 펼쳤다. 오예진과 임시현은 22일 열리는 개인전 결승에서 진검승부를 예고했다.

유도에서도 ‘금빛 투혼’이 이어졌다. 여자일반부 -52kg급과 -70kg급에 출전한 황수련과 김민주(이상 광주교통공사)가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소프트테니스 여U18 개인복식에 출전한 방나린과 김태연(이상 서진여고), 수영 다이빙 남자일반부 스프링보드 3m에 나선 김지욱(광주시체육회)도 각각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체고 조정팀(김지선, 노효림, 배지영, 천지민)은 여U18 쿼드러플스컬에서 대회 3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경량급 더블스컬에 출전한 김지선과 배지영은 금메달을 합작하며 2관왕에 올랐고, 싱글스컬에 나선 노효림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2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대회 3연패의 선봉에 선 김지선(국가대표)은 지난 14일 창단한 목숨그물 여자조정팀 입단 예정으로, 우수한 체육인재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이밖에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조승익과 진성익이 개인복식에서 금보다 값진 은메달을 합작



20일 서낙동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여U18 쿼드러플스컬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한 광주체고 조정팀(왼쪽부터 노효림, 천지민, 김지선, 배지영)이 엄길훈 광주체고 교장, 신영금 광주시조정협회 전무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며 광주선수단 선전에 힘을 보탤다. 전남선수단도 다관왕을 무더기 배출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근대5종에 출전한 김영하(전남도청)가 개인·단체전 금메달을 따내며 전남선수단 첫 2관왕을 신고했고, 유도 여자일반부 -70kg급 김지정(순천시청)은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육상에서도 낭보가 이어졌다. 이은빈(해남군청)이 여자일반부 100m에서 11초9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수확하며 대회 4연패,

이아영(광양시청)이 여자일반부 400m에서 5초26의 대회신기록과 함께 2연패, 최지우(광양하이텍고)가 여U18 400m에서 55초97로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마라톤에 출전한 심종섭(한국전력공사)도 2시간20분 27초의 기록으로 대회 2연패의 주인공이 됐다.

역도에서도 다관왕을 배출했다. 남U18 +80kg급 김태양(완도고)이 인상과 합계에서, +96kg급 신수용(고흥고)이 용상과 합계에서 각각 금메

달을 거머쥐며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우슈 남자일반부 산타 60kg급에 출전한 김민수(전남도청)는 한수 위 기량으로 대회 4연패의 주인공이 됐다.

시범종목으로 치러진 댄스스포츠에서도 전남선수단이 두각을 나타냈다.

U18 김고훈·김예은(전남선발)조가 삼바에서, 이재현·이재영(순천연맹)조가 차차차와 자이브에서 각각 금메달을 합작하며 전남선수단 선전에 힘을 보탤다. /박희중기자

“흘린 땀방울, 광주양궁 희망으로 빛나길”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린 선수들 모두 전국체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빛나는 결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지난 18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양궁경기가 열린 부산 사하구 을숙도체육공원 축구장을 방문해 광주 대표로 참가한 양궁선수단을 격려했다.

김 회장은 “1년 결실을 맺는 대회인 만큼 그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한발 한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나아가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해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씩 없는 도전으로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광주 양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양궁은 19일 끝난 거리별 경기에서 오예진(광주여대)이 여자대학부 50m (345점)과 30m (357점)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오른데 이어 70m (345점·대회신기록)와 60m (351점)에서 은메달 2개를 따내는 선전을 펼쳤다.

여자U18에 출전한 남지현(광주체고)은 30m에서 353점으로 은메달, 남자U18에 나선 박주혁(광주체고)은 50m에서 343점으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밖에 여자대학부 60m에 출전한 이수연(광주여대)과 남자U18 30m 심유한(광주체고)도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체전 현장 찾아 광주양궁선수단 격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지난 18일 전국체전 양궁경기가 열린 을숙도체육공원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메달을 보태며 메달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 양궁은 2008년 김 회장 취임 이후 협회와 지도자·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돼 체계적이고 특화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기보배와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매년 다수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양궁 명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박희중기자

특히 협회, 지도자 선수들이 하나돼 매년 초·중·고·대학·일반부 선수배들이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며 노하우를 전수받는 광주시협회장배 대회 등 체계적인 합동훈련을 꾸준히 전개해 멘토와 멘토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며, 개개인의 목표를 향한 강한 동기부여로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이어오고 있다. /박희중기자

“경쟁력 있을 때 떠나야...후배들 응원해주세요”

광주시청 육상 강다슬, 아쉬움 털어낸 ‘작은 은퇴식’

결승선을 통과한 강다슬(33·광주시청) 앞에 꽃다발이 여러 개 놓였다. 함께 100m 레이스를 펼친 후배들은 강다슬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후배들이 눈시울을 붉히자, 강다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한국 육상 여자 100m 역대 4위 기록(11초63)을 보유한 강다슬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를 은퇴 무대로 삼았다.

지난 19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일반부 100m 결선이 끝난 뒤, 지인과 후배들이 마련한 ‘작은 은퇴식’이 열렸다.

이날 강다슬은 12초19로 4위를 해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강다슬은 “3주 전까지만 해도 다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예선과 결선을 잘 치러 다행”이라며 “마지막 100m 경기니까 시상대에 오르고 싶었는데... 후배들보다 내가 부족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강다슬은 이영숙, 김하나 계보를 잇는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여자 스포르티어였다.

부상을 여러 번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2020년(11초75), 2021년(11초87) 한국 여자 100m 연도별 최고 기록 세웠고 다시 다진 뒤에도 2023년과 2024년 전국체전 여자 100m 2위에 오르며 반등했다.

올해 5월 구미에서 열린 아시안선수권대회에서는 이은빈(해남군청), 쌍둥이 자매 김소은, 김다은(이상 가평군청)과 역주해 여자 400m 계주 한국 신기록(44초45)을 세웠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강다슬은 이선애, 정한솔, 김민지와 44초60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11년이 지나 강다슬은 10살 이상 어린 후배들과 새로운 한국 기록을 만들었다.

강다슬은 “어느 순간, 회복이 더디고 예전에 했던 훈련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다”며 “아직 후배들과 경쟁할 수 있을 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올해 트랙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강다슬은 후배들에게 배턴을 넘긴다. 강다슬은 “김다은, 김소은, 이은빈 등 아직 어린 후배들이 벌써 좋은 기록을 내고 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서로 발전해, 아시아 무대로 올라섰으면 한다”며 “그동안 많은 응원을 받고 뛰었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회상했다.

강다슬을 따랐던 후배들은 100m 결선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의 걸을 지켜다./연합뉴스

실업새내기 김영하 ‘화려한 데뷔전’

전국체전 근대5종 개인·단체 2관왕...“내년 아시안게임 목표 매진”

실업 새내기 김영하가 전용태·서창완을 위협하는 근대5종 스타로 떠올랐다.

올해 전남도청 근대5종팀에 입단한 김영하는 지난 17일 부산체고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근대5종 남자 일반부 경기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모두 휩쓸며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해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자신감을 끌어올린 김영하는 국제 무대 경험을 발판 삼아 전국체전에서 기량을 만개했다.

김영하는 “(서)창완이 형 같은 상위권 형들과 함께 출전해 2-3위를 목표로 준비했다. 첫 종목인 펜싱이 잘 풀려서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었다”며 “침착하게, 실수 없이 경기를 치른다는 전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서창완 대해서는 “(서)창완이 형은 항상 믿음이 가는 선배다. 단체전에서도 서로를 믿고 뛰었고, 형이 앞에서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동운 전남도청 근대5종팀 감독은 김영하에 대해 “올해 처음 실업팀에 들어와 경험은 부족하지만, 스피드와 순발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험만 쌓이면 충분히 세



근대5종 2관왕을 차지한 김영하(오른쪽)가 단체전 우승을 함께 한 서창완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게 무대에서도 통할 자질이 있다”며 “전용태의 뒤를 이을 차세대 간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영하는 21일 열리는 릴레이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가장 가까운 목표로는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꼽았다.

김영하는 “선발전에 통과해서 창완이 형과 함께 아시안게임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다”며 “형을 보고 배우고 있지만, 이기고 싶은 존재다. (서)창완이 형은 나에게 지고 싶지 않다고 하니 서로 자극이 된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체고 김체량, 한국 역도 희망으로

여U18+87kg 인상·용상·합계 3관왕

광주체고 김체량(2년·사진)이 장미란을 잇는 차세대 역도 에이스로 우뚝 섰다.

김체량은 지난 18일 열린 역도 여U18 +87kg급 경기에서 인상 108kg, 용상 145kg, 합계 253kg를 기록하며 3관왕에 올랐다.

광주체고 2학년때 바벨을 잡은 김체량은 용상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지만 인상에서는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그가 올해 최기영 감독을 만나며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최 감독의 맞춤형 지도로 기본기가 단단해지자 파워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최 감독은 “(김)체량은 그동안 인상에서 약점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리적 훈련과 코어, 하체 보조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다”며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위해 관절 운동과 무릎 훈련도 병행했다. 인상에서 자신감이 붙으니 전체적인 기록이 탄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체량은 이미 국제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7월 2025 아시아 유소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77kg 이상급 3관왕을 차지하며 세계 유소년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을 동시에 경신했다.

최 감독은 “내년 목표는 인상 125kg, 용상 160kg이다. 계획대로 간다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며 “태극마크는 물론, 장미란을 뛰어넘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김체량은 오는 23일 바레인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유소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그는 “박해정 선배처럼 좋은 기록을 세우는 선수가 되고 싶다. 지금처럼 꾸준히 훈련해 언젠가는 올림픽 무대에 올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기자